

개인의 안녕과 건강한 가정을 통한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이 원 희 | 보건복지부 인구·가정 정책과 과장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공보건 의료 확충 및 통상협력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기능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국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보건복지부는 2004년에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민대상의 복지에서 전국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의 이념에 따라 전국민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중점적으로 도모할 것입니다.

국민의 평생건강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 증진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며, 이를 위해 공공보건 의료 인프라를 대폭 보강·정비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한편 질병관리 중심의 전염병 예방 체계를 확립하여 사스 등 신종 전염병 예방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암환자의 예방 및 치료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보건 인프라를 보강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보호와 자활을 위한 복지제도에 내실을 기하고 빠르

게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국가의 경제·사회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간병 등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사업 박차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이혼가정의 급증,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저출산·인구고령화라는 새로운 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킬 것입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의 유지와 저성장의 가능성에 대비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



도모함과 아울러 적정수준의 인구규모와 구조의 유지를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생성비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감소시키고 성감별 행위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의 적정규모의 유지에 못지않는 인구정책 중의 하나인 인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여성과 아동 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 동안 건강증진국의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과 인구·가족계획 업무를 사회복지정책실로 이관, 가정복지 업무와 통합하여 인구가정심의관을 신설하였고 노인요양보장 등 고령화 관련 정책, 저출산 등 인구정책, 건전가정 및 보육·아동정책관련 업무 등을 통합 관장하게 됩니다.

인구·가정정책과의 주요업무로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신인구 정책의 적극적 추진과 인구의 자질향상 및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인구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가족친화적 출산안정을

여성과 아동 위한 가정 중심의 복지 확립

여성과 아동의 건강관리의 세부사업으로 우선 임신부·영유아 등록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저소득계층의 임신부·영유아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인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그 동안 출생아의 일부(연간 출생아의 70%수준)에게 실시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연간 출생아 전원에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환아로 판정된 저소득계층에게는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환아관리사업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아 발생 및 영·유아 사망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낮은 모유수유율의 제고를 위하여 민관 협력하에 내실있는 모유수유 권장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대국민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가족 및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통하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및 보건소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모유수유율 제고에 미치는 언론인의 역할도 강조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간 균형있는 모자보건의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요구에 부응하는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사업의 운영·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여성과 아동의 보건 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인력의 기획·평가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질적인 인구정책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할 것입니다.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가정 지원책을 마련하여 가정중심의 복지체계를 확립하고 건강 가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내실있는 사업 추진

최근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가정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가정의 기능을 상설하여 요보호대상자가 발생한 후에 국가가 개입하기보다는,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이 지난 해 연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 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건강가정 종합정책 추진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상담·치료하며 건강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전국에 3개소 설치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혼준비교육, 부부 및 부모 역할교육, 직장·가족양립 지원, 가족 여가문화 등 가족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하여 건강가정을 구현하며 간소하고 합리적인 혼례문화 보급·정착을 위해 건전 혼례모형 개발추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경비 및 아동양육비의 현실적인 지원으로 건강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2004년 강원지역에 부자보호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가정정책과의 내실있는 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개인과 가정을 바탕으로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